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9 1994

별책 부록 : 어린이란

성도의벗 9 1994

표지:
사진 촬영:메리트
어린이란 표지:
사진 촬영:데니스 커비

일반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독수리의 자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2
완전한 할동 회원이 됨 빈센트 무노스 올로아 22
내 마음에 드리워진 철벽 우술라 피셔 24
보호의 손길 테오도루스 지 바알만 30
나의 적의 일기 스티븐 지 비둘프 32
조상들을 발견함 아라 카사브 델로로소 44
최고의 교사 웬디 에번즈 우디 46

청소년란

시험을 받은 후에 얻은 간증 윌리엄 지 다이어 20
질의 응답 : 왜 절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안될까요? 26
티칼의 신전과 간증 마빈 케이 가드너 34
영혼의 닻 엠 러셀 밸라드 장로 40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경전에서 배움 : 평생 동안의 탐구 25

어린이란(별책 부록)

이야기 : 라마야, 이리 와! 버나 터핀 보스키 1
친구가 친구에게 :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6
함께 나누는 시간 : "내가 용서하지" 주디 에드워드 8
노래 : 계명을 지키라 바바리 에이 맥코노키 10
이야기 : 성스러운 곳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12
에즈라 태프트 벤슨 켈리 릭스 아담스 14
심심풀이 : 우리 모두 성전을 찾아가 봐요 콜리스 클레이튼 16

성도의벗 1994년 9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간 –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허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편집인 : 렉스 디 피네가, 조 제이 크라스턴슨
고문 : 윌리암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디,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
관리 책임자 : 로널드 엘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 엠 엠 기와사끼
성도의 벗 :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데이비드 마첼
편집인 보조 / 어린이란 : 다앤 워커
스케줄 관리 :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 새리 룩
생산 관리 :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제니퍼 태트와일러, 제인 앤 캠프, 데니즈 커비
구독 담당 스탭 :
발행 부수 책임자 : 비 렉스 해리스
배부 부장 : 크리스 크리스첸슨
마케팅 부장 : 조이스 핸슨, 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 제342호, 제31권, 제9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4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한 상 익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4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2 번역 승인-10/92 September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9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배 위의 동반자

저는 화물선에서 기관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저의 가족과 소속 와드를 떠나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배를 탄다는 것은 곧 제가 세상적인 유혹에 둘러싸이고 이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을 통해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저에게 정기적으로 *탐불리*(영어판)를 보내 주는 충실하고 사랑스런 아내와 두 자녀에게 감사드립니다. *탐불리* 기사 및 연차 대회 말씀들은 저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키워 주며, 또한 제가 더욱더 강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배가 어디에 있든지 *탐불리*는 저와 교회를 연결시켜 줍니다.

레지노 페나란다
필리핀 나스피나스 스테이크
문틴루파 제2와드

간증을 강화시킴

저는 *데 스테른*(독일어판)의 영감 받은 말씀에 늘 감명을 받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는 특히 제 간증을 강화시켜 줍니다. 세상 곳곳에 계시는 성도들의 경험은 제게 감명을 주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데 스테른*을 애독할 것입니다.

폴커 겝하르트
독일 뮌헨 스테이크
쿠프뷔렌 와드

표지부터 끝장까지

저는 1992년 4월에 침례를 받고 가족 중 제일 먼저 교회에 속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저는 제 개종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감수하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침례는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으며, 저는 교회에 속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살난 딸이 간증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한 잡지인 *리스 오버 노르게*(노르웨이어판)에서 영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저는 이 잡지를 표지부터 맨 끝장까지 읽습니다. 제 딸은 어린이란을 무척 좋아합니다. 딸 아이는 우체통에 갈 때마다 어린이란이 왔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교회 회원이 되신 저의 어머니와 여동생 및 제 비회원 친구들과 이 잡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그들 모두가 이 잡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또한 가능하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리스 오버 노르게*를 놓아 둡니다. 때로는 병원에도 갖다 놓고 여객선에도 갖다 놓아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엘드리드 헬렌 안토니슨
노르웨이 스타방거 스테이크
베르겐 제1와드

매우 특별한 이유

저는 많은 책과 잡지 및 신문 등을 읽었지만,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고 느낀 것만큼 커다란 평화와 한없는 기쁨을 준 것은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를 함께 묶는 매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나누고 이 훌륭한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입니다.

주안 헤레디아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인디펜시아 스테이크
피안티니 지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독수리의 자취"

하워드 더블류 헌터는 열다섯 살 때 아이다호주에서는 두 번째로 이글 스카우트가 되었다. *(아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의 봉사 정신은 투철해지고 그의 신앙심은 더욱 커져 갔다.

헌터 대관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다. 그의 영성은 너무나 심오하여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이다. 오랫동안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온 헌터 대관장의 영성은 연마되고 연마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영성의 원천은 바로 그 자신이다.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겸손하며, 성스러운 것에 대해 말씀할 때에는 신중하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기 힘들 정도로 평온하고 고요하며 고매하기까지 하다. 그는 수도 없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으로 해서 오늘날 이 지상에서 티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요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윌리엄 헌터 대관장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14대 대관장으로서 행한 첫번째 기자 회견에서 맨 먼저 이런 말씀을 했다.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이제 제가 맡게 된 높고도 거룩한 부름에 합당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고, 권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요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이 교회를 말씀과 행위로 인도하신다는 저의 변함없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제 생명과 힘과 온 영혼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세계 만방의 교회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 친절하고, 더욱 공손하며, 더욱 겸손하게 대하고, 더욱

하워드의 어린 시절은 늘 즐겁고 행복했다. *(왼쪽부터)* 각각 8개월 때, 한 살 때, 두 살 때의 모습.

인내심을 갖고, 더욱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자신이 회원이라는 것을 살보여 주는 위대한 상징의 장소요, 가장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하늘과 같은 성스러운 곳으로 만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진심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하기를 바랍니다."[1]

헌터 대관장의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 나서 두 분의 부대관장은 간략하게 화답의 말씀을 하였다.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헌터 대관장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서건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런 일입니다. 특히 과거 30년 동안 매우 가까이에서 함께 일해 온 헌터 대관장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특별한 영광이요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주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인자한 방법으로 온전히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며, 저희는 사랑하는 이 지도자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헌터 대관장님, 저는 제2보좌로 대관장단에서 대관장님을 모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개 무량합니다. 우리는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 된 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지내 왔습니다. 저는 대관장님이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관장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며, 굶주리는 자들과 집없는 자들에게 온 정성을 다 바치는 지도자이십니다. 지금까지 대관장님의 큰 소망은 주님의 영을 통해 다른 많은 이들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관장님의 성역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매력이 넘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탁월한 재능을 지닌 헌터 대관장을 묘사한다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를 포착하려는 것과 같다.[2] 다음의 글에서 86년이라는 인생의 전 노정에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나래를 펴며 살아온 그의 인생 여정을 묘사하고자 한다.

하워드는 22세의 청년 시절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그의 축복문에는 "주님이 전세에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천사들 가운데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영"이었으며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관련된 「주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현세에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도록 성임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축복문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예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것은 물론 뛰어난 세상의 솜씨를 가진 거장이 되며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교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게 되고, 교회의 여러 평의회에서 봉사하게 되며, 지혜와 의로운 판단으로 유명해질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3] 하워드 헌터의 축복은 주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4]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이와 같은 유산을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및 미국에서 태어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 대관장의 증조할아버지인 존 헌터는 스코틀랜드의 파이슬리에서 천과 직물을 짜는 일

하워드는 누이 동생이자 막역한 친구로 지냈던 도로시와 아이다호주 보이스에서 성장했다. *(위)* 도로시는 그녀의 오빠*(아래,* 열두 살 때의 모습)가 중재자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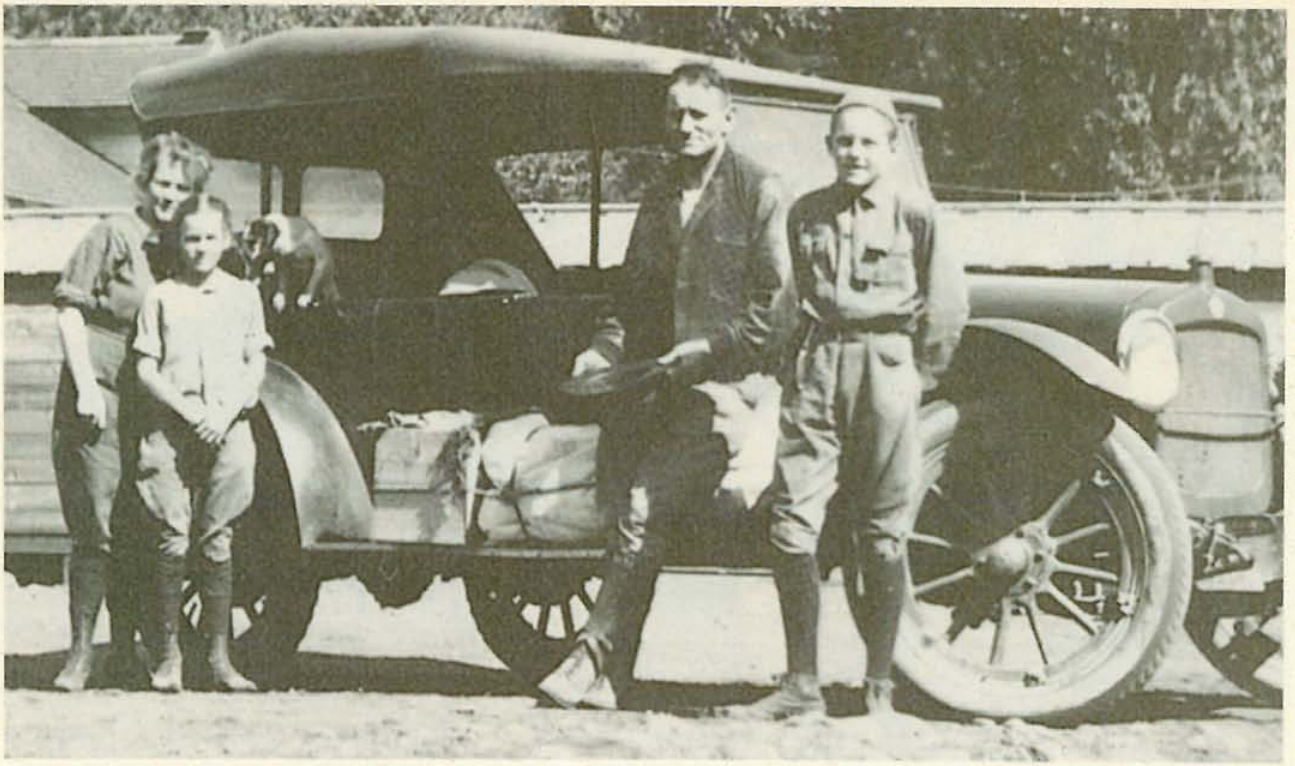
을 하며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솔트레이크시티에 자리잡고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했다.

증조 할머니인 낸시 해치는 언젠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속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몰몬 설교자(요셉 스미스)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 그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진실을 얘기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진실을 가르친 것처럼 그가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성임된 참된 예언자라는 간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였다."[5]

헌터 대관장의 어머니인 넬리 마리 라스무센은 1904년에 아이다호주 보이스에 살고 있는 이모를 방문하기 위해 유타주의 마운틴 플레전트에 있는 집을 출발하였다. 그녀는 보이스에 체류하는 동안 존 윌리암스 헌터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 후 2년 간 데이트를 하였다. 그러나 존은 당시에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넬리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마운틴 플레전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존이 결혼하자고 끈질기게 조르는 바람에 두 사람은 1906년 12월 3일에 결혼하였다. 두 사람은 보이스로 이사하여 셔만가에 있는 작은 집을 전세로 얻었다. 1907년 11월 14일에 보이스에서 하워드 윌리엄 헌터가 태어났고 누이 동생인 도로시가 2년 후에 태어났다.

얼마 전에 작고한 여동생 도로시 헌터 라스무센은 두 남매가 어렸을 때의 감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었다. "오빠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오빠는 늘 저를 돌보아 주었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잘하고요. 오빠는 동물을 좋아했는데, 길잃은 가축이



있으면 어김없이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들의 집 옆에는 관개용 개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러 명의 이웃 꼬마들이 개울물에 고양이 새끼를 집어 넣으며 장난치고 있었다. 새끼가 물에서 나오면 다시 물속에 집어 넣곤 했는데 꼬마들은 싫증이 날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장난을 되풀이했다. 도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오빠가 지나가다 말고 (새끼 고양이를) 구해 줬는데 새끼는 반쯤 죽어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고양이 새끼를 집에 데리고 왔지요. 어머니는 새끼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식구들은 새끼를 담요에 싸서 따스한 난로 가까이에 두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살아났으며, 그 후로 그들은 그 고양이를 여러 해 동안 키웠다. "오빠는 그처럼 다정했답니다. 제 평생에 오빠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6]라고 도로시는 말했다.

도로시는 오빠가 노인들에게 늘 공손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사려깊게 보살폈다고 회고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암소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유를 구해 오곤 하였답니다. 매일 밤 우유을 구하러 가는 일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유를 캔바스천으로 된 3.5리터들이 가방에 담아오곤 하였답니다. 우리 이웃에 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늘 그분에게 우유를 조금씩 갖다 드렸습니다."[7]

도로시와 하워드는 언제나 다정하게 지냈다. 도로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남매라고는 우리 둘 뿐이었는데 오빠는 언제나 친 남동생을 대하듯 제게 참 잘해줬습니다. 보이스 강변에 살고 있었던 우리는 목초지

존과 넬리 헌터 부부 및 두 자녀인 하워드와 도로시가 1919년 야외로 소풍을 나와 새로 산 차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 *(위)* 1927년, 하워드는 자기가 구성한 악단의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동양의 여러 곳을 여행했다. *(아래)*

를 횡단하여 가시 철망 울타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쩐 일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저보다 비트리스가 통과할 때 가시 철망을 더 오래 들어 주었어요.'라고 일렀습니다.[8]

"오빠는 늘 뭔가 하고 있었고, 일거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종이를 파는 등 온갖 일을 다하여 실로폰을 샀습니다. 우리 집에는 길다란 거실이 있었는데 오빠는 거실의 한쪽 벽에 모든 악기를 기대어 세워 놓았습니다. 오빠는 악기 음의 높낮이를 완벽하게 조절할 줄을 알았습니다. 오빠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술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그림을 표구하는 일을 배웠습니다."[9] 그가 소년 시절에 몰두하였던 또 한 가지 일은 사람들이 버린 망가진 자명종 시계를 주워다가 분해하여 수리하고 기름을 쳐서 완전히 고쳐 놓는 일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친 시계를 팔아서 용돈을 벌었다.

그 다음에 해본 일은 레몬을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을 골라내는 일이었다. 이 일은 그에게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맹이었던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그가 후일에 바나나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일가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남매가 비록 매우 다정하게 지냈다고 하나 하워드와 도로시는 성격이 좀 달랐다. 도로시는 자신이 때로는 완고하여 말썽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가 늘 다정하고 세련되었으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워드가 어렸을 때 예절바르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내 아들이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곤 했다.

하워드는 클라라(클레어) 메이 제프스를 1928년 교회 무도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1931년 6월 10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가 고등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음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그가 드럼 셋트를 산 후에 더욱 그랬다. 열다섯 살 때 그는 헌터 크루네이더라고 하는 악단을 조직하였는데, 그 악단은 보이스에 있는 고등 학교 사교 모임에서 연주를 도맡다시피 하였다. 고등 학교를 졸업한 다음 그와 그의 악단은 1927년에 극동으로 항해하는 유람선에서 연주를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이때쯤 침례를 받았다.

유람선에서 연주를 하여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그는 포드사의 무개 자동차를 샀다. 차는 멋도 없고 새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산 다음날 말썽을 일으켰다. 하지만 하워드는 수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걸려 차를 고쳐 냈다. 그 후부터 하워드는 "척척씨"로 통하게 되었다. 70대 중반쯤 그는 아주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크고 흰 차를 몰았다. 부품이 마모되어도 갈아 끼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 차는 복고적인 정감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커다란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는 집에 있는 공구와 장비를 이용하여 부품을 직접 가공하였다.

1927년에 아시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 하워드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친구 네드 레딩을 만나러 갔다. 심사 숙고한 끝에 그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남아서 일자리를 찾기로 하였다. 1928년에 이탈리아 은행(아메리카 은행의 전신)에 취직한 그는 대학 학점을 따기 위해 야간 대학에 등록하였다. 1928년 6월 8일, 하워드는 윌셔 와드의 봉사 이삭 줍기반 무도회에서 친구 네드 레딩으로부터 숙녀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대공황기의 어느 여름, 야영을 하는 하워드와 클레어 *(왼쪽)*, 한편 하워드는 고속도로 교각에 페인트칠하는 일을 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하워드는 후에 기업체 고문 변호사 및 많은 기업체의 이사가 되었다. 그는 언제나 가족 *(오른쪽—아내인 클레어와 두 아들인 존과 리차드)*을 매우 사랑했다. 현재 헌터 대관장에게는 열여덟 명의 손자녀가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음악을 사랑했으며, 친구들과 가족을 위해 자주 연주하기도 했다. *(아래)*

클라라(클레어) 메이 제프스였다. 첫눈에 반한 하워드는 클라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와 데이트하시지 않겠습니까?" 클라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뭘 그렇게 어려워 하세요?" 곧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1931년 초에 약혼을 하고 바로 그해 6월 10일에 결혼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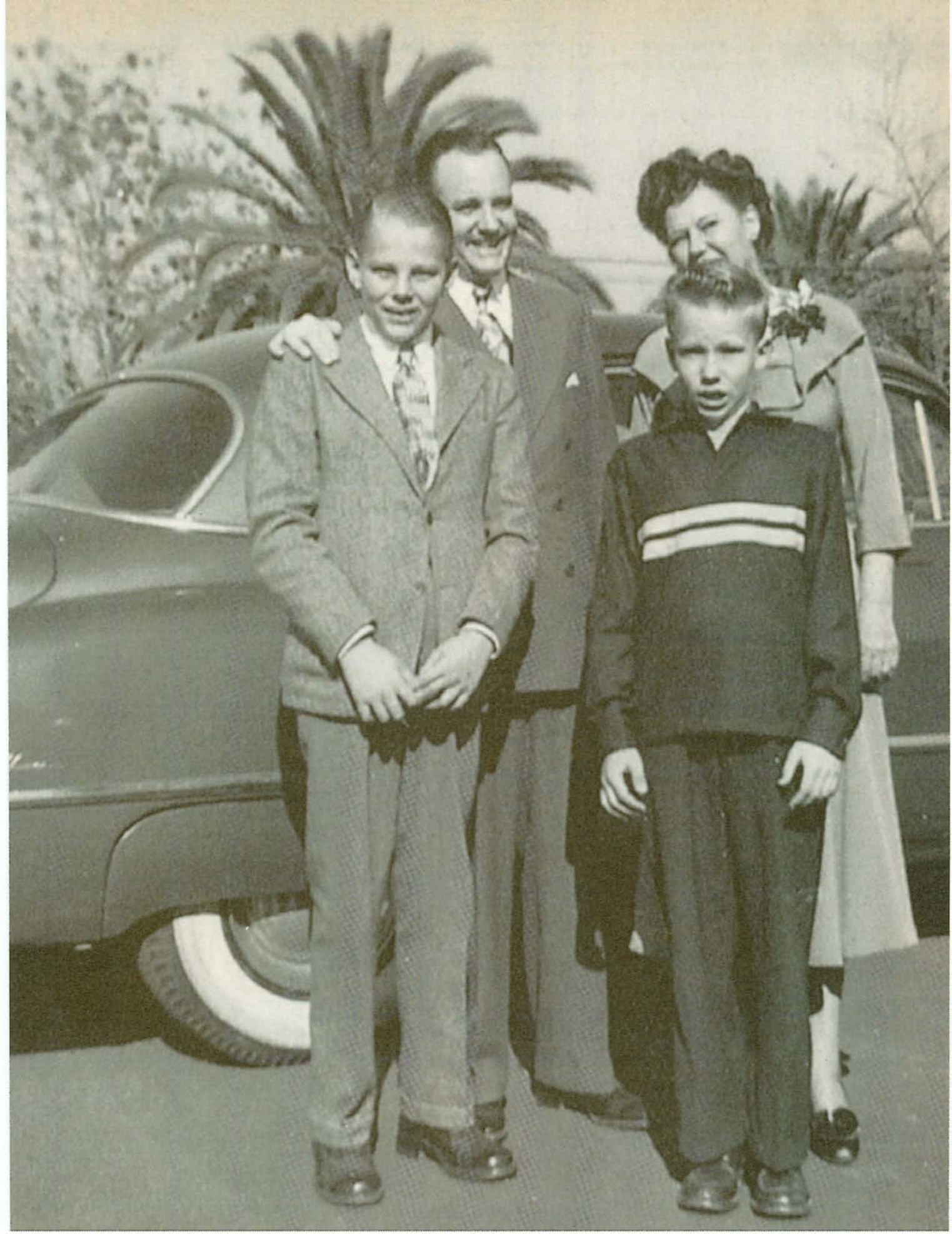
하워드는 약혼을 하고 난 뒤 프로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음악을 그만두고 결혼과 가정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그 후 그는 가족 모임에서만 악기를 연주하였다.

결혼 생활 초기에 1930년대의 경제 공황이 심해지자 하워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비누 장사도 하고, 측량 기사로도 일했으며, 도장 사업을 하고 있던 장인을 도와 교량에 페인트 칠하는 일도 하였다. 1934년 3월 20일에 하워드 윌리엄 헌터 이세를 낳고 하워드와 클라라는 부모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여름에 갓난 아기 빌리는 궤양이 된 소장 개실로 인해 복막염을 앓다가 수술 후에 죽고 말았다.

같은 해인 1934년 여름에 하워드는 간신히 로스앤젤레스군 홍수 통제원에 일자리를 구하였는데, 그가 맡은 일은 변호사들을 도와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재판 준비를 돕는 일이었다. 일정한 수입원이 생기자 그는 학교에 다시 등록하였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학 학위를 따기로 결심하였다. 다음 여러 해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상 수업을 받고 10학점을 이수하여 1939년 6월에 우등으로 졸업한 다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는 1940년 1월에 변호사 취임 선서를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개업 허가를 받았다. 주님의 축복으로 받은 빈틈없는 일솜씨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재정적인 안정을 갖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철저할 정도로 검소하였지만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하워드는 개인 변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1940년 9월에 패서디나 스테이크의 엘 세르노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때부터 청년 시절에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 명시된 "중요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1946년 11월까지 감독직에서 봉



헌터 대관장은 감독, 대제사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장 등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 그는 남부 캘리포니아 복지 지구 의장 및 로스앤젤레스 성전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1959년 10월 10일,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1960년 중반기에 구성되어 후반기까지 봉사한 십이사도 정원회) 헌터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하와이의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의 관장, 유타주 계보 협회 회장 및 교회 역사가로 봉사한 것을 포함해 많은 임무를 완수했다. *(왼쪽)* 그는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사명을 띠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다. *(아래)* 1968년 통가의 국왕인 타우파하우 투포우 4세를 예방한 헌터 장로.

사를 하고, 두 아들 존과 리차드가 태어나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집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헌터 가족은 1948년에 아카디아로 이사를 하였다.

1950년 2월에 패서디나 스테이크를 분할하도록 명을 받은 스티븐 엘리차즈 장로와 헤롤드 비 리 장로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패서디나 스테이크장의 부름을 주었다. 하워드는 망설이지 않고 이 부름을 받아들였다. 어렸을 때부터 꼬박꼬박 일기를 써 온 그는 일기에 이날의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두 분의 장로님께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아내의 내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려웠던 법대 시절과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그리고 내가 맡은 모든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집사람 클라라는 늘 내 곁에서 성원과 이해를 아끼지 않고 내조를 해주었던 것이다.[10]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할 당시 복지 사업을 위해 503에이커나 되는 목장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고등 학생을 위한 새벽반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패서디나 스테이크에서 운영하는 가능성을 연구하여 교회 세미나리 비휴식반의 효시가 되게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아직도 잘 시행이 되고 있다.

교회 일과 시정 활동과 변호 사업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조화를 기한 하워드는 출세를 거듭하였다. 그는 무슨 문제건 신중하고 사려깊게 처리하였는데, 그 좋은 예가 어떤 소송 사건에서 원고측의 변호를 맡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웃 목장에서 뿌린 살충제가 날아와 도마도 작물에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으로서 두 번째로 재판이 속개되던 날 하워드가 법정에서 멋진 변론을 하여 12명의 피고측 변호인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고 하워드의 변호 의뢰인도 이를 수락하였다. 정확한 사고와 논리 정연함에 직관적인 정의감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당시에 하워드는 애리조나 성전에서 특별 방문을 한 패서디나 스테이크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한 일이 있었다. 이날 46회의 생일을 맞이한 그

는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회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흰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성전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아버지가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날 부모님께서 엔다우먼트를 받으신 뒤 내가 그 분들이 부부 인봉을 받을 때 증인이 되었으며 나도 부모님에게 인봉이 되었는데, 이 뜻깊은 일로 하여 나는 나의 생일인 이날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11]

1959년 10월 9일은 하워드 더블류 헌터의 생애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날이었다. 이날 하워드와 클라라는 10월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갔는데, 하워드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그를 만났으면 한다는 메모를 받았다. 맥케이 대관장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내일 형제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될 것입니다."[12]

연차 대회에서 하워드의 이름이 소개되고 지지를 받고 난 후 클라크 부대관장은 그에게 연단에 착석해 있는 십이사도와 함께 앉도록 권했다. 하워드는 이렇게 회고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듯 점점 두근거렸습니다. 휴비 브라운 장로님이 옆자리로 옮겨 앉으시고 저에게 앉을 자리를 내어 주시어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열두 번째 회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게 중심이 제 어깨에 옮겨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집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몹시 불안하고 과연 이 자리가 제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13]

이 부름은 느닷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헌터 장로와 그의 부인 클라라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25년간의 로스앤젤레스 생활을 청산하고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업상의 친구, 정들었던 교회 회원들, 그리고 다정한 친구들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헌터 장로는 개인적이고, 직업적이며 영적인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되었던 가치의 우선 순위를 이미 오래 전에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정든 캘리포니아와 친구들을 두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그가 설정한 우선 순위 목록에서 언제나 제1순위였던 것이다.

수년간의 사도 생활은 주님의 영에 이끌려 무아 지경에 빠진듯 하면서도 언제나 영감으로 가득 찬 생활이었다. 법률을 연구하고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이 유용한 봉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대회 연설과 기타의 말씀에서 변호사 시절에 배운 삼단 논법식의 논리를 자주 썼는데 그 논법에 의한 결론에는 언제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었다.

지나칠 정도로 겸손한 헌터 대관장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았다. "젠체하지 않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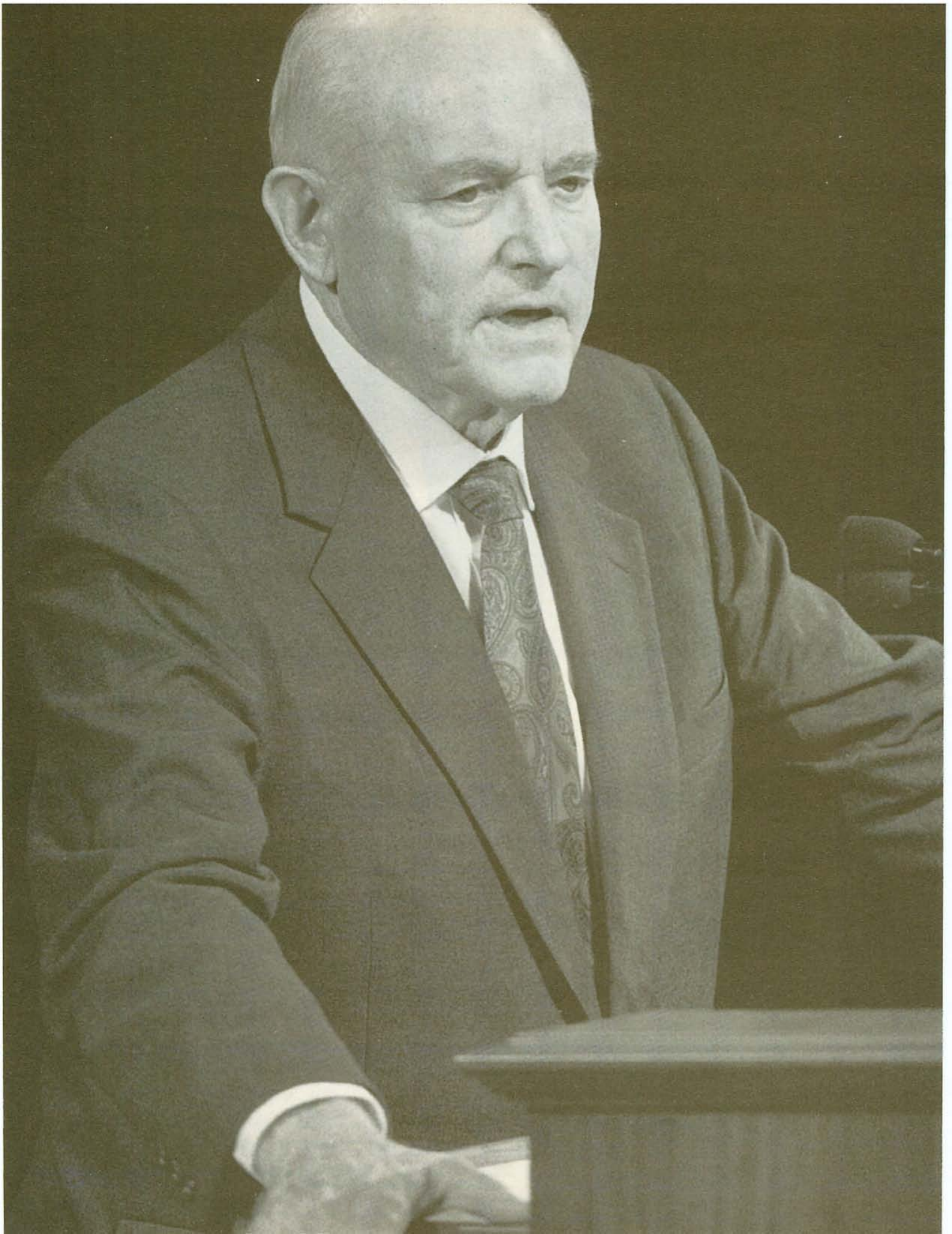
신세계 고고학 재단의 고문회 회장으로서, 헌터 장로는 치첸 이차를 포함해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여러 유적지를 여행했다. *(왼쪽)* 후에 헌터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 에루살렘 센터 건립을 감독했다. *(오른쪽 위)* 1983년, 마크 이 피터슨 장로와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1989년 에루살렘 센터 헌납 전, 테디 콜렉 에루살렘 시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헌터 대관장.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 그는 다른 사람의 안락을 먼저 생각하며 특별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하워드 헌터 장로와 사귀어 본 사람들은 그를 판단이 건전하고 깊은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평한다.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법이 거의 없으며,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법도 거의 없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감정과 안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의견, 결론,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헌터 장로는 문제들을 신중하게 숙고를 한다고 십이사도들 및 그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러한 습성이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체득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의견과 기분을 얘기할 때 그는 주의 깊게 듣는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단에서 누구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시할 경우 그는 찬반 투표를 강행하지 않고 잠시 보류해 둔다."[14]

동료 사도인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성격이 온유하신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청년 시절에 일자리를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그 일자리를 수락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기 때문



교회의 여러 가지 직책에서 봉사하고 많은 업적을 쌓은 헌터 대관장에게도 역경과 슬픔은 예외가 아니었다.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83년에 숨지고 그 자신도 큰 병을 앓은 뒤 그의 동정심과 신앙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사도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왼쪽)*, 총관리 역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오랫동안 그의 옆자리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앉았다 *(오른쪽)*. 1990년 4월, 그는 이니스 베르니스 이건 자매 *(아래)*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분과 함께 하루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치도록 일한 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 보니 그분은 말없이 저의 구두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그 일을 끝내기를 바라셨던가 봅니다. 매일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분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15]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그가 한 일에는 교회 본부의 위원회 관련 업무 및 전 세계의 스테이크와 선교부를 순회하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신세계 고고학 재단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제까지의 임무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 재단은 브리감 영 대학에 있었지만 이 전문 연구 기관은 남부 멕시코와 북부 캘리포니아의 고고학 사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리하이의 자손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었다. 일부 유적지는 원시 시대의 것이었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위해 문자 그대로 정글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헌터 장로는 이때 삶은 달걀과 바나나를 먹으며 정글속의 악조건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헌터 대관장은 언제나 성지(이스라엘 지역)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대관장단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실시되는 두 개의 특별 사업을 지휘하도록 지명하였다. 그 중 한 사업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와 협력하여 모금을 하고 그 돈으로 올슨 하이드 기념 정원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정원은 1979년에 헌납되었다. 다른 한 가지 사업은 브리감 영 대학교 해외 학기 프로그램을 수용하게 될 센터 건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교섭하는 것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미 10년 동안 실시되어 온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후보 부지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지만 결국 적당한 부지를 구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자 토지를 관장하는 당국은 임대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꽤 거금이군요." 그러자 교회가 선임한 저명한 이스라엘인 변호사 조

셉 코키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꽤 거금이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375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귀 당국에서 소유한 토지는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 특별한 부지에는 근사한 예루살렘 근동 연구 센터 건물이 들어섰다. 헌터 대관장이 테디 콜렉 시장을 비롯한 기타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센터의 건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헌터 대관장은 예루살렘 센터를 1989년 5월 16일에 헌납했다.

대관장의 사랑하는 부인 클라라 제프 헌터는 수년 동안 치명적인 뇌졸증을 앓다가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1983년에 이 세상을 떠났다. 헌터 대관장은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사랑과 존경과 헌신으로 아내를 위해 정성어린 병간호를 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보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병세가 악화되어 감에 따라 클레어는 그에게만 미소를 짓고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두 부부가 의사소통을 할 때마다 어찌나 애정이 그윽하게 넘쳤던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할 정도였다. 남편이 이처럼 아내에게 극진히 헌신한 예가 없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보기 드문 것이었다. 사랑은 봉사하는 것이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헌터 대관장은 걷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은 채 말씀을 하여 참석한 회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처음 시작한 몇 마디에는 그의 유머와 재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제가 몇 마디의 말씀을 드리는 동안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리에 앉아서 대회의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서 말씀을 드리렵니다."[16]

1988년 4월, 헌터 대관장은 보행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 대회 말씀을 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말씀 중간쯤에 그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몬슨 부대관장과 패커 장로와 경호 요원 한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했다. 대회가 끝나고 여느 때처럼 유머 감각이 변함없이 되살아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잠시 꽃밭에 내려 앉았군요!"

1988년 12월,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 덕택으로 헌터 대관장은 형제들이 모이는 십이사도 정원회 실에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다.

1990년 4월 12일 목요일, 주례 성전 회의에서 의제를 모두 토의한 다음 헌터 대관장은 이렇게 질문했다. "의제 이외에 다른 안건을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 오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잠시 숨막히는 순간이 이어지다가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했다. "자매님은 캘리포니아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귄 분인데 얼마 동안 만나 오다가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헌터 대관장이 홀로 사는 것을 걱정하였던 총관리 역원들에게 이 소식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 놀랍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개방적이면서 온화하고 예의바르며 우아한 여성을 반려자로 맞게 된 것을 알게 된 총관리 역원들은 기쁘게 생각하였다.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새로운 반려자가 된 이니스 자매는 끊임없이 헌터 대관장에게 깊은 관심과 염려를 보여 주었다. 헌터 대관장이 동반자와 늘 함께 여행할 수 있고, 그녀에게 교회 봉사 차원의 일을 보여 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헌터 대관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겁고도 다양한 임무와 책임을 맡고 있다. 그녀의 경우 총관리 역원의 아내가 갖게 되는 모든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였다. 교회 집회와 선교사 모임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의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이니스 자매는 즉흥 연설을 하는 법을 재빨리 배웠다. 헌터 자매는 대관장님에게 한결같이 위안과 기쁨이 되고 있다.

헌터 대관장은 언제나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1993년 2월 7일에 대관장은 19개의 스테이크가 모인 노변의 모임과 교회 교육 기구 방송에서 연설하기 위해 브리감 영 대학교 교정을 방문중이었다. 헌터 대관장이 일어서서 매리옷 센터에 모인 약 20,000명의 젊은이들에게 연설하려 하자 어떤 사람이 "꼼짝마!"라고 외치면서 대관장을 협박하였다. 그 남자는 폭탄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터 대관장만 남겨 놓고 모두 단상에서 나가라고 소리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헌터 대관장은 두 명의 경호원과 함께 의연한 자세로 연단에 남아 있었다. 대관장은 총기같이 보이는 것으로 위협받고 있었지만 그 남자

헌터 대관장은 1985년 11월 10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서리가 되었으며 1988년 6월 2일에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새로운 책임 때문에 여행을 덜하게 되었지만, 그는 솔트레이크 밖에서 갖는 중요한 교회 행사에 계속 참여했다. *(위)* 헌터 대관장과 헌터 자매가 199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구 대회에서 회원 및 선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 건네준 성명서를 읽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학생들이 일제히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 남자가 잠시 한눈을 팔았으며 그 사이에 경호원 한 사람이 그를 덥쳐 끌고가 감금해 버렸다. 나머지 경호원들은 안전을 위해 헌터 대관장님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물론 장내에서 상당한 소란이 일어났지만, 장내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대관장님은 잠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마이크 앞에 다시 서서 준비한 연설문의 첫줄을 읽었다. "인생의 전도에는 수많은 도전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대관장은 연설을 멈추고 청중을 굽어 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다. "보신 바와 같이." 대관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설을 계속하셨습니다.

헌터 대관장은 연단에 설 때 침착하면서도 지극히 평온하며, 그의 모습에서는 자연스런 위엄이 그윽히 풍겨 나온다. 그의 말씀은 언제나 사려깊고 심오하며 다정 다감하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를테면 1983년 10월에 하신 말씀에서 헌터 대관장은 자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했다.

"자녀 교육에서 성공한 부모란 어떤 분인가 하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며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했을 때 자녀가 변함없이 제멋대로 하고 말썽을 일으키거나 세속적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부모로서

성공을 한 셈입니다."[17]

경전의 말씀이 지적했듯이 주님의 발아래에 앉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깊고도 깊은 지혜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18]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대리는 헌터 대관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들은 종종 하워드 더블류 헌터라는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해 옵니다. '형제님은 그분을 잘 아시고 오랫동안 그분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정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말씀이 적으시고 지혜로우시며 복합성이 없는 솔직한 분입니다. 그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고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만큼 교리와 절차를 잘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분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의 참모습'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1994년 6월 5일, 지금까지 우리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알고 지냈고 우리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고매한 인품의 그는 교회의 대관장으로 부름받고 지지받았으며 성별되었다. 그는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위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전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헌터 대관장은 교회의 제14대 대관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된 뒤, 다음 날 기자 회견장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더욱 친절하고 더욱 공손하며 더욱 겸손하게 대하고 인내심을 갖고 더욱 용서할 수 있게" 되자고 권고했다. *위*, 헌터 대관장이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왼쪽*) 및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함께 기자 회견에서 말씀하고 있다.

데 필요한 자질을 빠짐없이 구비하고 있다. 그는 주님을 받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 부드러운 분이다. 재기가 넘치는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매력이 넘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다. 기억력이 탁월하며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사랑이 넘치며 다정하고 인정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이고 만인이 좋아하는 아저씨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분이다. 그는 바로 말일의 경륜의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주님의 예언자이다.

그의 나이나 나빠진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의 굳센 정신과 마음과 기백이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으며 오히려 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올슨 하이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상고하면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이끌도록 성임되고 임명된 사람은 온갖 환난과 질고를 이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시련도 겪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주님의 여러 평의회 앞에서 자신의 합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의 영과 권고의 말씀을 이해하고 교회를 알며 교회에 알려진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19]

경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신권의 직분을 관리하는 대관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통할하며 모세와 같아야 하느니라. 참으로 저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선견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니라."[20]

경전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좇은 대신권의 대관장단은 교회 안의 일체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니라."[21]

주님에게서 지지를 받았고 교회 회원들의 지지를 받은 헌터 대관장은 주님의 대제사로 말일에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22]

헌터 대관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중 한 분이다. 그의 영성은 너무나 심오하여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이다. 오랫동안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온 헌터 대관장의 영성은 연마되고 연마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영성의 원천은 바로 그 자신이다. 성스러움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겸손하며, 성스러운 것에 대해 말씀할 때는 신중하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기 힘들 정도로 평온하고 고요하며 고매하기까지 하다. 그는 수도없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으로 해서 오늘날 이 지상에서 티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요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주:

1. 제이 엠 토드, *엔사인*, 1994년 6월호, 4~5쪽.
2. 잠언 30 : 19.
3. 일리너 노울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출판사, 1994년), 71쪽 참조.
4. 예레미야 1 : 5.
5. 리차드 헌터, "헌터",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률 학교에서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교수 생활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위해 쓴 약전(미출판), 브리감 영 대학교, 1989년.
6. 도로시 라스무센, 저자와의 대화, 1992년 10월 23일.
7. 상동.
8. 상동.
9. 상동.
10. 리차드 헌터, "헌터".
11. 일리너 노울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35쪽.
12. 리차드 헌터, "헌터".
13. 일리너 노울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45~146쪽.
14. 상동, 176, 229~231쪽.
15. 닐 에이 맥스웰, "온유하고 겸손한", *1986~87년 비와이유 기도 모임 및 노변의 모임 말씀집*(프로보 : 브리감 영 대학교, 1987년), 61쪽.
16. *엔사인*, 1987년 11월호, 54쪽.
17. *엔사인*, 1983년 11월호, 65쪽.
18.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8 : 9.
19. *설교집*, 1권 123쪽.
20. 교리와 성약 107 : 91~92.
21. 교리와 성약 107 : 9.
22. 이사야 40 : 31.

시험을 받은 후에 얻은 간증

윌리엄 지 다이어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조그만 지부에서는 경전 읽는 것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경전을 가질 만한 형편이 되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니파이일서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언젠가는 더 많이 읽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선교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마땅히 그렇다 할 동기를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할 지역에 도착한 지 2주 후에 제 동반자는 우리가 어떤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사업을 갓 나온 풋내기였으므로 동반자에게 그가 직접 토론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 지원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느 초라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은 가족과 친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옆이 불룩한 큰 난로 뒤에 거의 가려져 있는 의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동반자는 복음을 가르쳤으며, 저는 동반자가 명쾌하게 가르치는 것과 모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몹시 즐겁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주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 주 뒤에 방문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컸으며,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목사라고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이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재빨리 난로 뒤에 있는 의자를 찾았습니다.

제 동반자는 다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간 중간에 그 목사가 끼어들어 제 동반자가 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성구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저는 단 한 마디도 거들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 동반자가 토론을 모두 마치자, 그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악마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유타주로 돌아가 이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해 주님께 용서나 빌라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으며, 매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 진리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믿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이 년이란 세월을 허비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몰몬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매시간, 기회가 닿는 대로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니파이일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저는 니파이인들의 시련과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간의 전쟁 등의 이야기에 심취했으며, 야곱, 이노스, 베냐민 왕, 암몬, 앨마, 모사이야 및 몰몬경의 전반부에 나오는 다른 여러 위대한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앨마서의 뒷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앨마가 아들 코리앤톤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에는 매우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에 대한 앨마의

가르침을 읽었습니다. 그처럼 명쾌한 가르침은 지금까지 한번도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리와 가슴을 꿰뚫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성령이 제 이해의 눈을 열어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밝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율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몰몬경을 모두 읽었을 때, 이미 저는 제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며, 제 자신이 주님의 선교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몰몬경을 통해 얻은 제 간증은 이후의 제 삶에서 튼튼한 방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됨

빈센트 무노스 울로아

저는 아내 세시와 함께 교회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실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 지부장이신 피노스 지부장님이었습니다. 지부장님은 제게 지부장단의 부지부장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저를 그분의 아들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오는 그런 따스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새 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부에는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으로 교리와 성약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참석하면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 교사님이 떠나시게 되었는데, 제게 그분의 뒤를 이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강의 내용 가운데 성전 결혼과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가 있었던 날 밤에 저는 잠을 자다가 19년 전에 돌아가신 삼촌과 역시 이미 돌아가신 계부를 꿈에서 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성전에 가야 하며 성전 결혼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도 성전에 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제 결의가 더욱 굳어지기를 바라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가 앞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면, 제가 아내인 세시와 자녀인 디에고, 아드리아니타와 함께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내를 깨워 제가 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이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기 힘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에콰도르의 암바토에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성전은 국경 너머 페루의 리마에 있었습니다. 그 곳까지 여행하려면 서류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버스로 서른 여섯 시간이나 달려야 하는데다 경제적인 희생도 적지 않게 요구되었습니다. 더구나 한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으며 활동량이 많은 저희 자녀들에게는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면서 저희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1987년 5월 20일, 저는 아내와 딸과 아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탑 위에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자녀들과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위한 의식을 받은 뒤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대리 의식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또 성전에 가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영원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 의식과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자녀인 아드리아니타 및 디에고와 함께 한 빈센트, 세시 무노스 부부

사진 촬영: 헤리 볼러

내 마음에 드리워진 철벽

우슬라 피셔

저는 1929년 독일의 메이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리 부유하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실직해 계셨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저의 아버지는 즉각 군에 징집되었다가 1945년에 포로가 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다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1947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뒤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저의 보금자리는 갈가리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열여덟 살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떠나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절함이나 온유함이나 이해심 같은 것은 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저는 화평하게 살아갈 자신을 잃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전념을 하였지만, 제 삶에는 참된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철벽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1991년에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마음의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다시 한 번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개월 후에 저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해심과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영이 저의 철벽과 같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1991년 11월 11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과 마음에 경전의 말씀을 채우는 방법과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배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디어 평안을 찾았습니다. □

경전에서 배움 : 평생 동안의 탐구

몰몬경에 처음 시작되는 세 구절에서 예언자 니파이는 자신을 복음 진리의 학습자요 기록자로 소개했다. "나 니파이는…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신 일을 많이 알게 되었으매… 이제… 기록하노니, … 또한 내가 아는 바대로 나 스스로 기록하노니"(니파이일서 1:1~3)

니파이는 자기의 조상들이 쓰던 언어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조상들의 기록을 읽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다. 니파이처럼 우리도 직접 경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불행하게도 교회 회원 모두가 필요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전세계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주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어떤 회원들에게는 이러한 목표가 읽을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우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또는 개인적 장벽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 어떤 회원들에게는 이러한 목표가 그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활용하여 경전을 더욱 충실하게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쓸 수 있는 보다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림:넵시 사먼 크룩스턴

우리는 복음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리하도록 도울 수 있음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방문 교사인 마벨 쿠말로 자매는 자신이 방문했던 한 자매가 경전이나 교회 지침서를 읽을 수가 없어 곤혹스러움을 느끼던 끝에 교회 참석을 중단한 데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쿠말로 자매와 그녀의 동반자는 그 자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맹 퇴치반에 등록하도록 도왔다. 그 자매는 문맹 퇴치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쿠말로 자매님! 꿈이 이루어졌어요!"라며 탄성을 질렀다.

또 다른 방문 교사인 가나의 프리실리 삼손-다비스 자매는 한 자매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마을을 멀리서 온다. "제가 방문하는 자매님은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저는 방문해서 그 자매님께 경전을 읽어 드립니다."라고 삼손-다비스 자매는 말한다.

유타주의 샌디에 살고 있는 한 자매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재활동화된 자신의 방문 교육 동반자가 자신의 간증을 갖기를 원했지만 몰몬경을 읽으려다가 좌절감을 느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역시 같은 좌절감을 느꼈던 자매들이 와드 내에 몇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독의 지시를 받아 상호부조회에는 와드의 관심있는 자매들을 위해 주간 몰몬경 반을 편성하였다. 자매 한 명이 부름받아 반을 가르치고 토론을 이끌었다. "주간 몰몬경 반에 참석하는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몰몬경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했던 한 자매님은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고 성전 축복도 받았습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었던 한 연로하신 자매님은 이제는 새 경전을 구입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상호부조회 회장은 말한다.

전세계의 자매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의 유익이 되게 하고자 내가 이를 기록하노라."(니파이이서 4:15)

-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를 여러분 생활의 지속적인 일과로 할 수 있겠는가?*
- *여러분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겠는가?* □

왜 절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안될까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한 번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안될까요? 그런 뒤 다시는 안할텐데요. 딱 한 번만 해본다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다음 대답은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답:

사실 형제님은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그 답변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로운 습관이 될 수 있는 일은 아예 안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시험삼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본다고 해서 형제님이 더 현명해지거나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제님이 어떤 유혹에 단 한번만이라도 굴복하게 되면 그와 같은 유혹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형제님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이 담배와 술을 안한다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형제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형제님이 한번 굴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형제님이 다시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험해 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제님은 틀림없이 형제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인생은 약간 두려워질 것입니다. 형제님은 그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의 지혜와 권고를 믿고 따르십시오.

우리가 전세계의 독자들에게서 받은 수많은 편지들 중에서 몇 가지 의견을 뽑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대답:

첫째, 형제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세상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했고, 둘째, 술과 담배를 하게 된다면 형제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지혜의 말씀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고, 셋째, 담배와 술을 하게 되면 형제님이 다른 유혹에도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를 입게 되며, 넷째, 구세주의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형제님은 시험삼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지혜의 말씀과 기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틴 에프 알라마
소노, 16세
페루 리마시
막달레나 스테이크
푸에블로 리브레
와드

알콜과 담배가 해로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사람이 그러한 것을 끊을 때는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즉 호기심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는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를 "잊기 위해" 시험삼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앨마서 37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라." 개종자인 저는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자란 청소년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좀더 일찍 교회를 찾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가 "지혜를 배우"도록 도움을 준 성도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상래
한국 부산
서 스테이크
김해 지부

저의 아버지는 제가 뭔가를 "딱 한번만" 해본 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기계 정비공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작업복 대신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러 갈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기름과 분진 때문에 와이셔츠가 매우 더러워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루만 입어 보면 되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와이셔츠에 얼룩과 먼지가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시험삼아 딱 한번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보는 것도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러 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술과 담배가 몸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이라도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 영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기름때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은 지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단 한번이라도, 또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비오 맥시모,
20세 브라질
캄피나스 스테이크
캄피나스 제4와드

담배나 술을 피우거나 마시는 것이 실제로 어떤 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상 피우거나 마시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어떤 지를 알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피우거나 마셔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술과 담배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경험삼아 담배나 술을 피우거나 혹은 기타 약물을 복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듯이 형제님도 이러한 것들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왜 시험해 보려 하십니까? 더군다나 첫번 시도에서 형제님은 목이 따갑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현기증이 난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든지 아니면 더 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는 이러한 물질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신체의 반응입니다.

윈스톤 엘
세르반테스, 24세
필리핀
마닐라 스테이크
산타 메사 와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 초소에서 복무하는 동안 과하게 술을 마셔서 병든 사람들을 보았는데, 저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기만 해도 술로 인해 빚어지는 끔직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이러한 행위가 빚어 내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기타 계명을 지키는 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뉴엘 토마동,
19세
프랑스 낭시

담배, 술 또는 어떤 것이든 위험하고 파멸을 가져 오는 것을 취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행위를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일 단계요 다음에는 실제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일단 담배와 술을 시작하게 되면 이들을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형제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제님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간구하면 그분은 형제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레아 카르타, 15세
독일 뒤셀도르프 스테이크
콜로그네 제1와드

형제님이 "딱 한번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자 한다면, 사탄은 형제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자 할 것입니다.

강한 방파제는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견뎌 낼 수가 있지만, 일단 균열이 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끊임없이 치는 파도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췐 슈 후아, 24세
대만 흐신 추 지방부
타오 유안 서 지부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내

에서나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꺼렸습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세속적인 파티에 초대하는 일이 있었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친구들에게 현세에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세에서는 용납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들에게 등대, 즉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모범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오늘날 선교사와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속담을 기억합니다. "큰 불은 작은 불씨에서 비롯된다."

폰기아 베카, 21세
통가 누쿠알로파
남 스테이크
하벨루로투 제2와드

저는 형제님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해보고 싶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해 전에 담배와 술을 해볼까 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매일 매일 우리의 행위를 지켜 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충실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로에 쿠와나, 29세
일본 홋카이도

저는 형제님에게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로서 여러 연령층에 속한 1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중 3퍼센트가 남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자기네들도 담배를 피운다고 말했고, 11퍼센트는 자극이 필요해서 피운다고 했고, 5퍼센트는 "피우고 싶으니까 피운다"고 했고, 나머지 81퍼센트는 "호기심에서" 피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조사한 사람들 중 한 여자분은 담배를 끊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호기심이고 뭐고 간에 담배에 손도 안댔을 거예요."라고 하며 담배의 해로운 점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돈이 많이 들고 죽음을 재촉"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어기면 이는 육체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기는 것이므로 우리의 영 역시 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교리와 성약 89편에 명시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로자 엘레나 몬탈보
마티네즈, 20세
멕시코 베라쿠르즈
리포르마 스테이크
누에바 에라 와드

이 세상에 술과 마약에 중독된 가엾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술과 마약을 시작할 때 흔히 "딱 한번만 해 볼꺼야."하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 우리의 호기심을 내맡기기 전에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여 경전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해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교회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경우, "멸망의 천사가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21)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리아 유게니아
라미레즈 레이즈,
22세 칠레
비나 델 마 스테이크
누에바 오로라 와드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와드와 스테이크 명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국어로 썼을 경우에는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글과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아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면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실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저는 가끔 교회에서 연사가 "오늘 여기에 영이 충만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제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

보호의 손길

테오도루스 지 바알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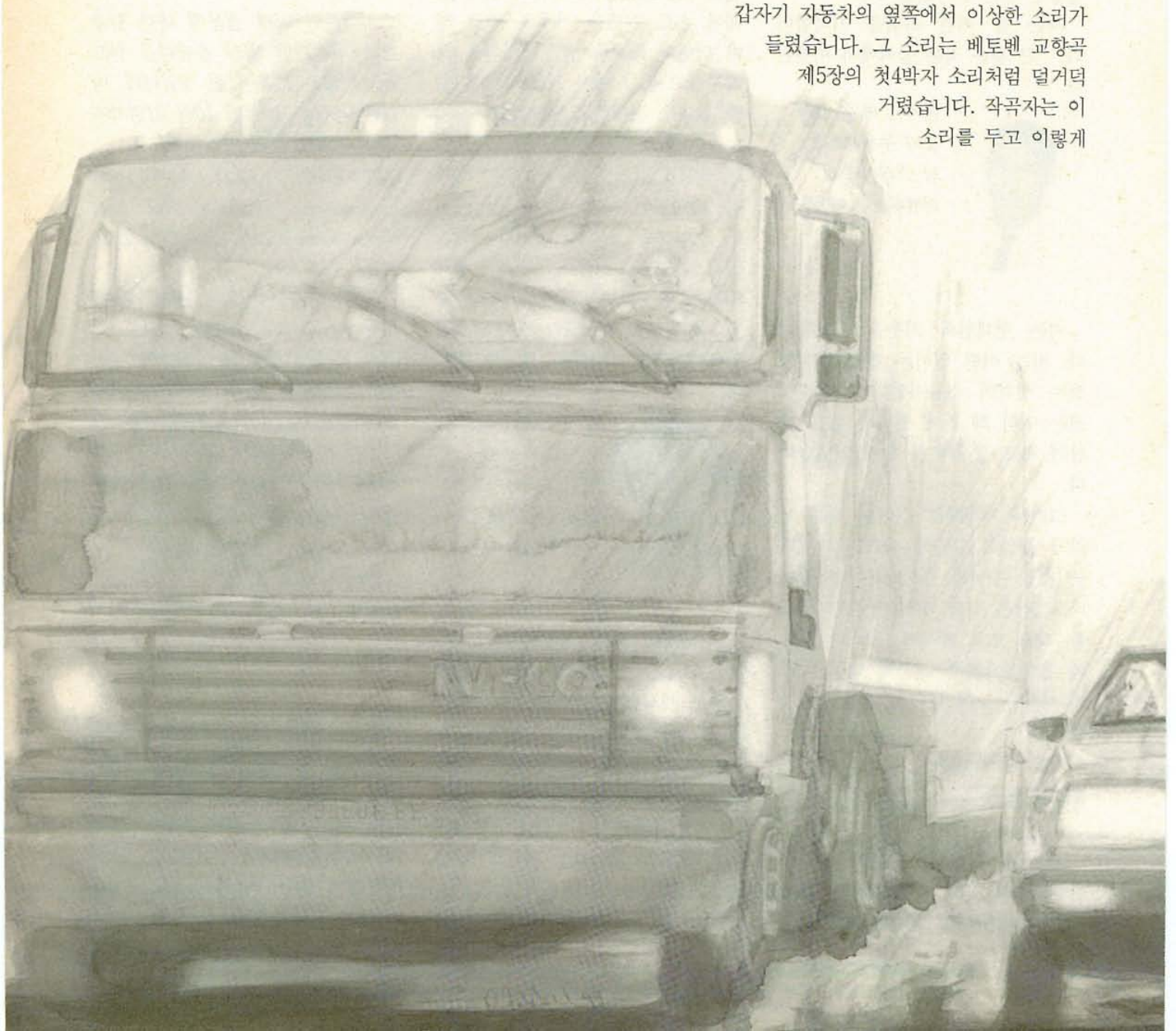
그림 도우그 파겔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자동차와 대형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에 젖은 고속 도로를 휙휙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지날 때마다 바퀴에서 튀겨져 나오는 물이 커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괴물을 지나칠 때마다 트럭이 뿜어내는 물벼락이 우리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가끔 긴 대열의 자동차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괴물과 같이 큰 자동차들 중 한 대와 나란히 수분 동안 같이 달려야만 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와 불과 몇 미터 떨어져서 질풍과 같이 달리는 괴물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시간에 맞게 도착하려면 이처럼 위험스런 날씨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음으로 스스로에게 푸념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자동차의 옆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베토벤 교향곡 제5장의 첫4박자 소리처럼 덜거덕 거렸습니다. 작곡자는 이 소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는 운명이 문을 노크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자주 반복하여 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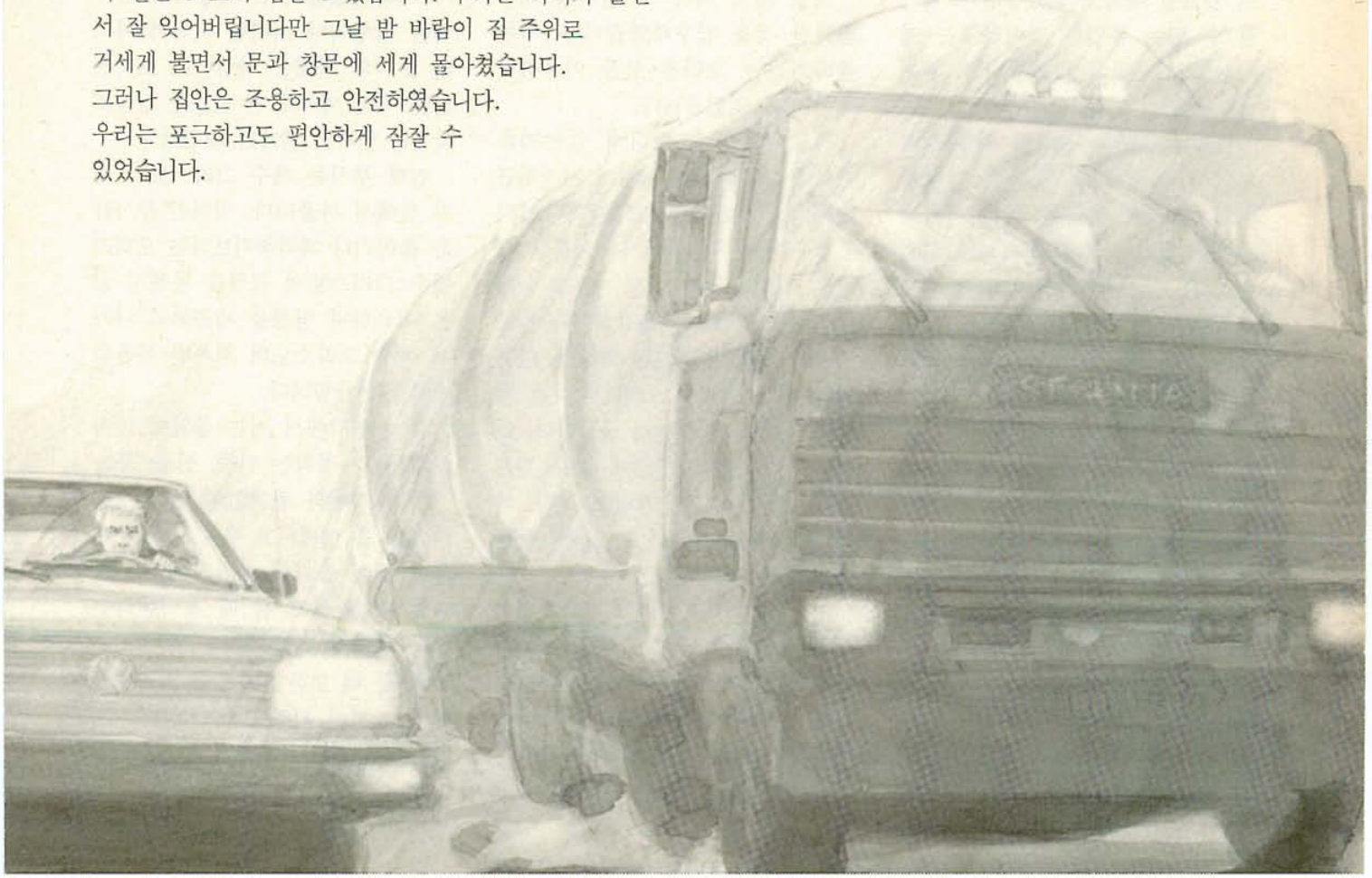
저는 비상 차선에서 차를 멈추고는 타이어와 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수 킬로미터를 달리자 또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고 다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 번째 차를 멈추었을 때 타이어에 코코넛 크기로 서서히 커진 툭 불거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 왔던 정비사가 타이어 내부를 살펴보더니 두려워 놀란듯 탄식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타이어는 새것이었지만 내피가 크게 찢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공장에서 출고 전에 있었던 하자였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킬로미터도 나갈 수가 없어요."라고 정비사가 말하였습니다. "하마터면 타이어가 터질 뻔 했어요." 저는 우리가 커다란 트럭 곁을 달리면서 타이어가 터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흔히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였던 보호의 힘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폭풍이 몰아치던 날 밤 저는 다시 그와 같은 보호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잘 잊어버립니다만 그날 밤 바람이 집 주위로 거세게 불면서 문과 창문에 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조용하고 안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포근하고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깨어나 기도를 하고 아랫층에 내려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우리는 무서움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가스 냄새가 진동하였고 우리가 보통 꽉 잠갔던 부엌문이 강풍으로 인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만 깜박 잊고 가스 스토브 꼭지를 활짝 열어놓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폭풍이 불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가스가 온수기의 불길로 인해 점화되어 필경에는 틀림없이 큰 폭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결혼을 하였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평범한 부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많은 횟수에 걸쳐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비운의 사고로부터 두 번씩이나 우리를 구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



나의 적의 일기

스티븐 지 비둘프

이상한 일 같지만 월남전 중 저는 평화스럽고 행복한 인생에 대한 비결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2 개월 동안 쉴 새 없는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그러한 전투 경험은 저의 육체적 정신적 힘을 소모시켰습니다. 집에서 오는 우편물도 전선에 거의 배달되지 않았고 저의 영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매주 일요일의 성찬식도 일요일 예배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제 자신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전투와 하루도 빠짐없이 보게 되는 죽음의 현실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저는 지치게 되었고 저의 마음은 강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적의 피에 굶주린 니파이의 투사들처럼 닮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몰몬서 3:9 참조)

1972년 7월 9일, 하루 종일 행군을 한 다음 저의 대대는 얼마 전에 공격을 당한바 있는 작고 사람이 살지 않는 부락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두막 집들이 작열하는 태양빛 속에서 연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근 들판에서 우리는 젊은 월맹군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옷을 뒤질 때 저는 죽은 적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죽은 월맹군 시체에서 서류가 발견되어 대대장에게 가져 갔습니다. 그 서류가 군사 정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기였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저는 적이 시간을 내어 일기를 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긴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일기를 대충 번역한 것을 입수하였습니다. 저는 깜박거리는 요리용 불을 이용하여 그 일기를 읽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일기는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장교들은 우리의 조국을 침략한 미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용감히 잘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용감히 싸우지만 보급이 형편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멀리 있는 가족이 그립다. 나는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나는 집이 그립다. 산중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숲속을 거닐고 싶다. 나는 꽃들과 새들 그리고 고향의 동물들이 다시 보고 싶다."

저는 일기 내용에 깜짝 놀라 일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적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는 혈연 관계에 있는 영이 쓴 글입니다! 그의 국민과 저의 국민은 외관상으로 메울 길이 없는 문화, 인종 및 정치적 차이로 인해 서로 노려보며 적으로 만났으나 우리는 혈연 관계에 있는 영이라는 입장에서는 실로 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베트남이 실제 전쟁터가 아니며 저의 전우들과 제가 실제로 투사가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의 전쟁은 루시퍼가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지상에서 진짜 적은 월맹이나 어떠한 국민이 아니라 무지의 전쟁을 자행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전 인류를 상대로 맞서는 영적인 굴레인 것입니다.

진짜 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밑에서 싸웁니다. 이러한 투사들은 죽이거나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통해서 삶을 치유하며 영생을 제공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지식을 선물합니다.

그날 월남에서 저는 불옆에 앉아서 행복과 평화는 인종, 신조, 또는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인간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심지어 외관상 적같이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

티칼의 신전과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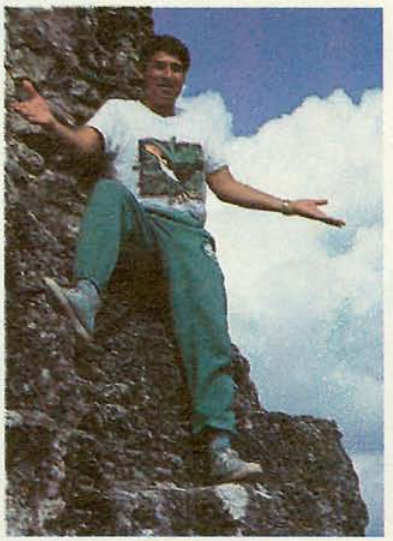
마빈 케이 가드너
사진 촬영: 작자

높다란 신전들이 정글 밑바닥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장엄하게 치솟아 있다. 고대인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방과 회랑과 안뜰과 가파른 돌계단에 가득 배여 있다. 이곳에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있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던 마야의 도시, 티칼이다.

마야 문명이 멸망했을 때 티칼 역시 그것과 운명을 함께 하여 과테말라의 냉혹한 다우림 밑에 묻혀서 초목에 침식당하게 되었다. 이제 티칼의 몇몇 피라미드와 궁전들이 또 다른 몇 가지 불가사의와 함께 우리 눈앞에 드러나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따로 떨어진 곳

고대인들은 티칼의 이곳을 숭배하였다. 오늘날 그 근처에 사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티칼이 성벽 꼭대기에서 니파이인들에 예언하는 레이맨인 사뮤엘이나 대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베냐민 왕이나 사악한



티칼의 인상적인 배경 속에서는 몰몬경의 이야기에 대한 역할 담당극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다. 특별히 수준 높은 관객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이곳에서는 저절로 조용히 명상하게 된다.

노아 왕 앞에서 간증을 전하는 아빈아다이 등의 역할 담당극을 할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을 안다. 그곳은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에 관해, 과거와 현재의 성전에 관해 잊혀진 진리와 현존하는 진리에 관해, 또 티끌에서 나오는 예언의 소리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영감적인 장소이다.

다른 방문자들이 잘 모르는 어느 외따로 떨어진 곳에 열한 명의 말일성도 청녀들이 그들의 지도자와 일행 중 한 소녀의 오빠와 함께 모여 있었다. 근처 산베니토의 신학연구원 세미나리 학생들인 그들은 아침에 함께 모여 티칼의 신비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중에 야생의 공작과 스라소니를 보았으며 육중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여

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 그들 중 한 소녀가 장난스럽게 투덜거렸다.) 그들은 고대 마야 건축물의 꼭대기에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열대 다우림이 끝없는 대양의 물결처럼 뻗쳐 있었으며 다른 고대 신전의 꼭대기가 고요한 녹색 바다 위의 거대한 배처럼 수목들 위로 튀어나와 있었다.

무척 화창한 날씨였다. 이제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고대 왕궁이 만들어 준 그늘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신들의 간증과 느낌을 나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조용히 부른 후 누군가가 기도를 드린다.

"우린 이곳 가까이에 살아서 참 행운이야. 이곳은 우리 조상들에게 특별한 장소였거든." 이라고 일행 중 한 명이 경건하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면서 티칼의 유산과 교훈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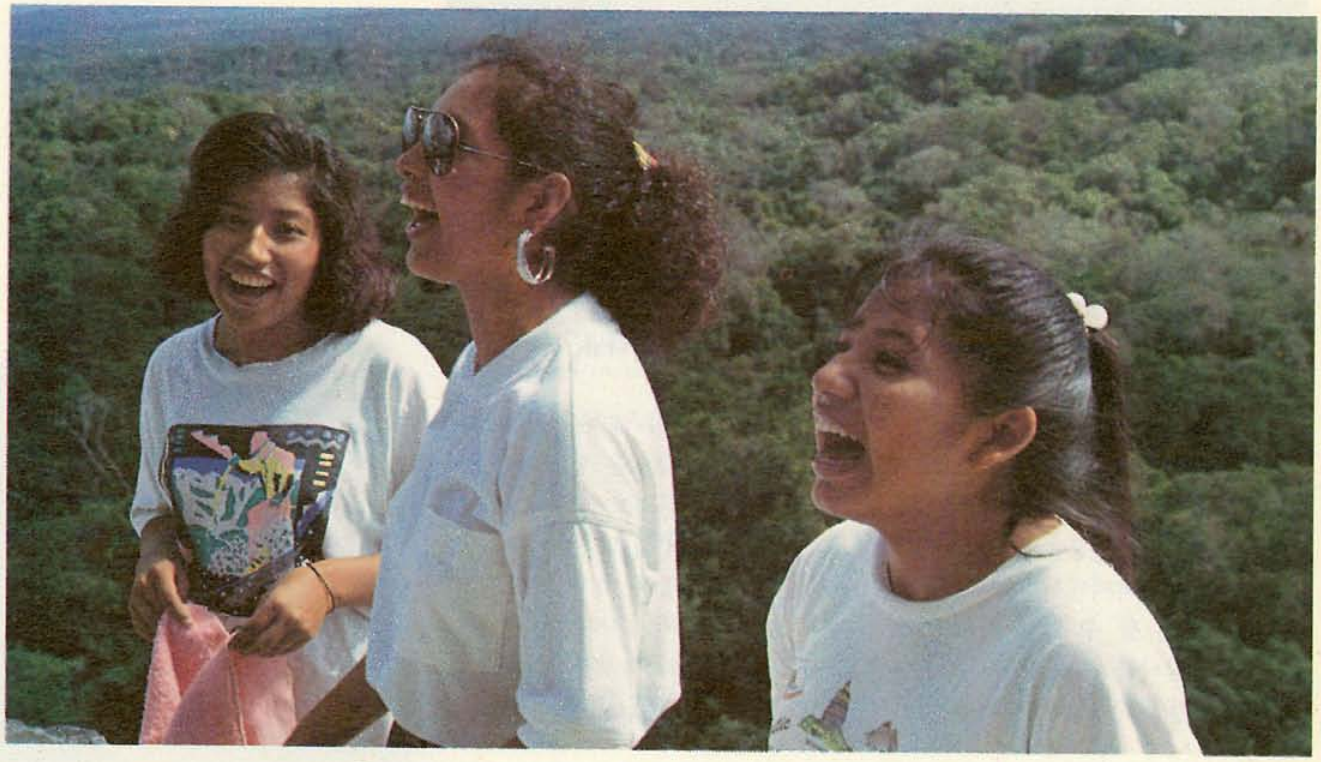
또 다른 성전

이들 고대 신전에 둘러싸여 그 곳 분위기에 젖은 이 말일성도 청녀들은 과테말라 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국의 또 다른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끌리는 것 같았다.

18세의 예세니아 델바예이는 "우리 가족은 얼마 전에 늘 꿈꾸어 오던 일을 하였어요."라고 말한다.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거든요. 가족 인봉을 받은 지금,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청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에게 인봉되기 위해서든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 의식을 받기 위해 과테말라 시의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다. 2년 전에 그 지부의 청소년들은 대리 침례 의식을 받기 위해 열다섯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과테말라 시로 갔다. 17세의 소일라 델바예이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부활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영을 느끼며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 그 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그 곳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한다.

17세의 클레이리 발데스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그분의 교회에 속한 것과 성전에서 부모님께 인



봉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24세의 루비 몬순은 최근에 귀환한 선교사로서 세미나리 교사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열네 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은 무척 힘들었어요. 종종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언젠가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말해 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위로의 음성이었으며 제 마음을 달래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고 평안함을 느꼈어요."

루비와 그녀의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삼 년 후에 과테말라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요. 저는 순종을 통해 항상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어요. 또 어머니에 대해 많이 생각하면서 얼마 후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할 수 있음도 알고 있어요."

루비의 여동생인 22세의 라켈은 자신과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받기 위해 과테말라 시로 갔을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 축복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축복문에는 제가 기도와 경전 공부 및 금식을 통해 또 어머니가 생전에 제게 해주셨던 권고에 따름으로써 제가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교회에 충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참된 하나님"

그 곳의 독특한 배경을 제외하면 티칼에서의 그 모임은 말일성도들이 모여 감사를 표현하고 간증을 전하는 세계 곳곳의 다른 많은 비슷한 모임과 같다. 청녀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및 그분의 속죄와 그리고 살아 계신 예언자와 회복에 대한 감사를 표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와 눈물이 거리낌없이 흘러나왔다.

17세의 카라 몬순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그분은 우리가 진보하여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교회를 마련해 주셨어요."라고 말한다.

24세의 올린다 메넨데스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음을 발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한다.

20세의 주디트 몬순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예요."라고 말한다.

"저는 성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봉받았을 때 무척 행복했어요."라고 12세의 화니타 레이온은 말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식당을 경영하였기

여러 개의 고대 마야 신전의 꼭대기로 올라가 외따로 떨어진 돌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며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은 멋진 일이다. 세미나리 교사인 루비 몬순*(아래)*이 일행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간증 모임을 이끌고 있다.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년이 아버지에게 와서 교회에 대해 얘기하였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복음 토론을 하였고 두 주 후에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받은 한 달 후에 저희 아버지는 산베니토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일 년 후에 우리는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요!"

화니타는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제가 아팠을 때 저는 계속 기도하였어요.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며 제가 충실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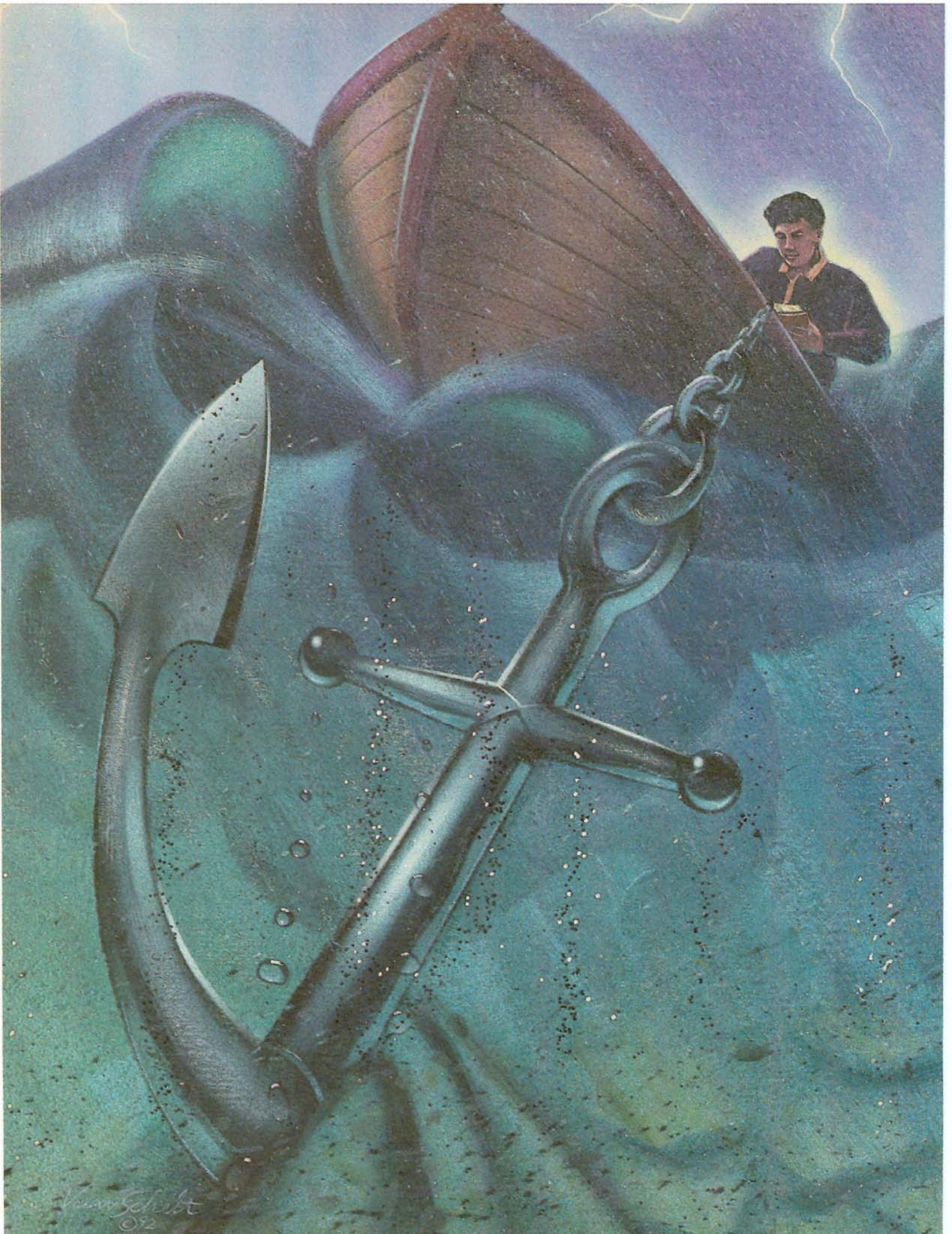
살아 있는 성도들의 음성

이들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간증을 전함에 따라 주님의 영이 티칼의 고대 영지에 있는 이 조용한 구석지를 채운다. 그것은 마치 성전과 같은 느낌이다.

이제는 점심을 먹고 정글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시간이다. 그러던 도중 어느 지점에서 그들은 머리 위로 나뭇잎이 팔랑팔랑 떨어지며 박수 소리와 입맞춤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았다. 위를 올려다 보고 소녀들은 원숭이들이 높은 나뭇가지 위에 꼬리를 감고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와르르 웃으며 원숭이의 박수 소리와 입맞춤 소리를 등지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 중 한 마리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던졌다. 누군가가 그것을 집어 들고는 그것이 열대 과일의 씨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에는 원숭이의 작은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일행이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함에 따라 다시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다. 티칼의 이면에는 사라지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다. 옛날에 누가 살았으며 누가 이곳에서 예배드렸을까? 그들은 하나님과 우주에 대해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귀여운 아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티칼의 장엄한 신전은 비어 있고 그곳에는 어떤 비애, 즉 한때 위대했던 민족이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이들 청녀에게는 비애보다는 신앙과 희망이 따른다. 그들은 과테말라 시에 있는 성전과 세계 도처에 있는 다른 말일성도 성전이 살아 있는 성도들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음을 안다. 빛과 진리와 응답의 장소인 이 현대의 성전들은 주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다. 그 벽 안에서 말일성도 부모와 자녀들은 즐겁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생의 의미에 관해 배우고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된다. □



영혼의 닻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커다란 배가 닻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닻이 오르내릴 때 그 육중한 사슬 고리가 금속으로 된 뱃머리에 삐걱거리며 긁히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닻이 바다 밑바닥에 알맞게 자리잡으면 그것은 험한 바다에서조차도 거대한 배를 단단히 잡아 줄 수 있습니다.

배가 넓은 바다로 표류해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닻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사람들이 유혹과 죄의 바다로 표류해 가지 않고 확고하게 남아 있으려면 영적인 닻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오늘날 어디나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인 혼란과 사악함의 시기에 인생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매기 위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미있고 효과적인 것이 되고 또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생애 및 속죄와 말일에 지상에 회복된 복음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예비 선교사들에게 말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그 부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바로 그날 밤에 선교사로 봉사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요셉 스미스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요셉 스미스서 2:14)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전에 미리 계획하여 둔 곳에 은밀히 나아가 주위를 살펴보고 나 혼자 있음을 확인한 다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 버려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쌌으며, 한동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면서도 거의 실망하여 상상의 세계에서의 파멸이 아니라 나를 결박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에 의하여 나의 몸을 파멸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

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5~17)

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다면 이들 예비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는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을 안다면 *참으로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러한 지식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온 생애 동안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아들을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말씀해 주셨으며 다시 한번 지상에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도록 예언자와 사도를 부르셨음을 아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침례 요한을 통해 아론 신권이 회복된 것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 단순하게 말해 본다면 하나님의 신권이 회복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혼란과 폭풍우에 대항해 여러분의 영적인 닻을 확고하게 내립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문제입니다.

만일 몰몬경이 제가 간증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책에 나온 원리와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에게도 똑같이 간단한 시험 방법이 적용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모든 면과 모든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것들이 참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요한복음 14:26)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범선이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지며 가장 험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고 강하게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닻이 가장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졌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우연한 잘못으로 그 닻에 연결된 고리가 질이 낮고 튼튼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닻이 처음으로 바다에 내려질 때나 또는 그 닻을 내린 배를 강한 물결이 처음으로 밀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닻과 연결된 고리의 어느 한 부분이 부러진다면 그 닻은 대양 밑바닥의 쇳덩이로 남게 되고 그 배는 표류하여 아마 파선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닻이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신앙과 간증의 닻에 연결된 고리는 복음의 단순한 교리와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기도라는 복음 고리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굳건하게 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과 학문과 직업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고리에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고리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건강의 율법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그 고리는 여러분이 건강한 육신을 갖도록 도와줄 것

복음의 단순한 교리인 신앙의 고리에 들어 있는 고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닻이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며 여러분이 교회에 더욱 헌신하도록 도와줄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교리와 성약 89:19)게 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고리는 십일조의 법입니다.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커진다면 여러분은 수입에 상관없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정직, 도덕적인 순결,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많은 고리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들 복음의 닻에 연결된 고리는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신앙과 간증의 닻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의 강도만 지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영혼이 복음에 닻을 내리도록 해주는 개인적인 고리를 점검하여 악의 영향에 공격받기 쉬운 약한 고리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연결된 고리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훌륭한 방법은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찬은 주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을 상기시켜 주며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의 생활을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성찬을 취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음 고리를 점검하고 각 고리들이 교회에 안전하게 닻을 내리는 일을 하는 데 똑같은 강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에 닻을 내리도록 해주는 개인적인 고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의 원리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의 고리 중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인생의 시련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평화와 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일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닻을 내렸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한 번에 한 고리씩 강화시켜서 모든 고리를 강하게 만드십시오. □

조상들을 발견함

야라 카사브 델로로소

1993년 3월의 그날 아침에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때만 해도 나는 나 자신과 조상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브라질 산토스 스테이크의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날의 대회 말씀에 열심히 귀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말씀을 한 어느 자매의 이야기가 특별히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자매는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해 이야기했다.

내 친구인 실마라 페레스 역시 강하게 영을 느꼈다. 우리는 모임이 끝난 후 우리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사업 책임자 중 한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가족 기록 초출 프로그램을 돕겠다고 자원했다.

다음 화요일에 우리 둘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스테이크 센터로 갔다. 우리는 훈련을 받은 후 마이크로 필름에 찍힌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에서 복음의 구원의 의식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기록에서 이름과 날짜를 초출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 곳에는 다른 누군가가 어떤 마이크로 필름 기록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 그는 친절하게도 자신이 다루고 있던 기록을 우리가 인계받아 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해서 단지 두 사람의 이름을 초출했을 때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동명 이인이 아닐까? 우리는 책임자에게 그 마이크로 필름에 찍힌 기록들이 어느 도시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우리가 흥분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책임자는 그 마이크로 필름을 앞으로 되감아 주었다. 그 곳에는 이티라피나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 있었다.

실마라와 나는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최근의 휴가 때 우리는 감독님과 그의 가족과 함께 이티라피나를 방문했었다. 그 곳은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도시를 보고 싶어했었다. 그제야 우리는 마이크로 필름에 나온 이름과 날짜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조상들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복받쳐 오르는 감사의 마음과 간증을 느꼈다. 이제 그들을 위해 성전 사업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실마라와 나는 이 일을 생활의 일부로 여겨 계속해 왔으며 우리의 간증은 점점 커졌다. 매주 우리는 스테이크 센터로 가서 초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이크로 필름에서 이름을 초출해 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역시 침례와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이 봉사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

최고의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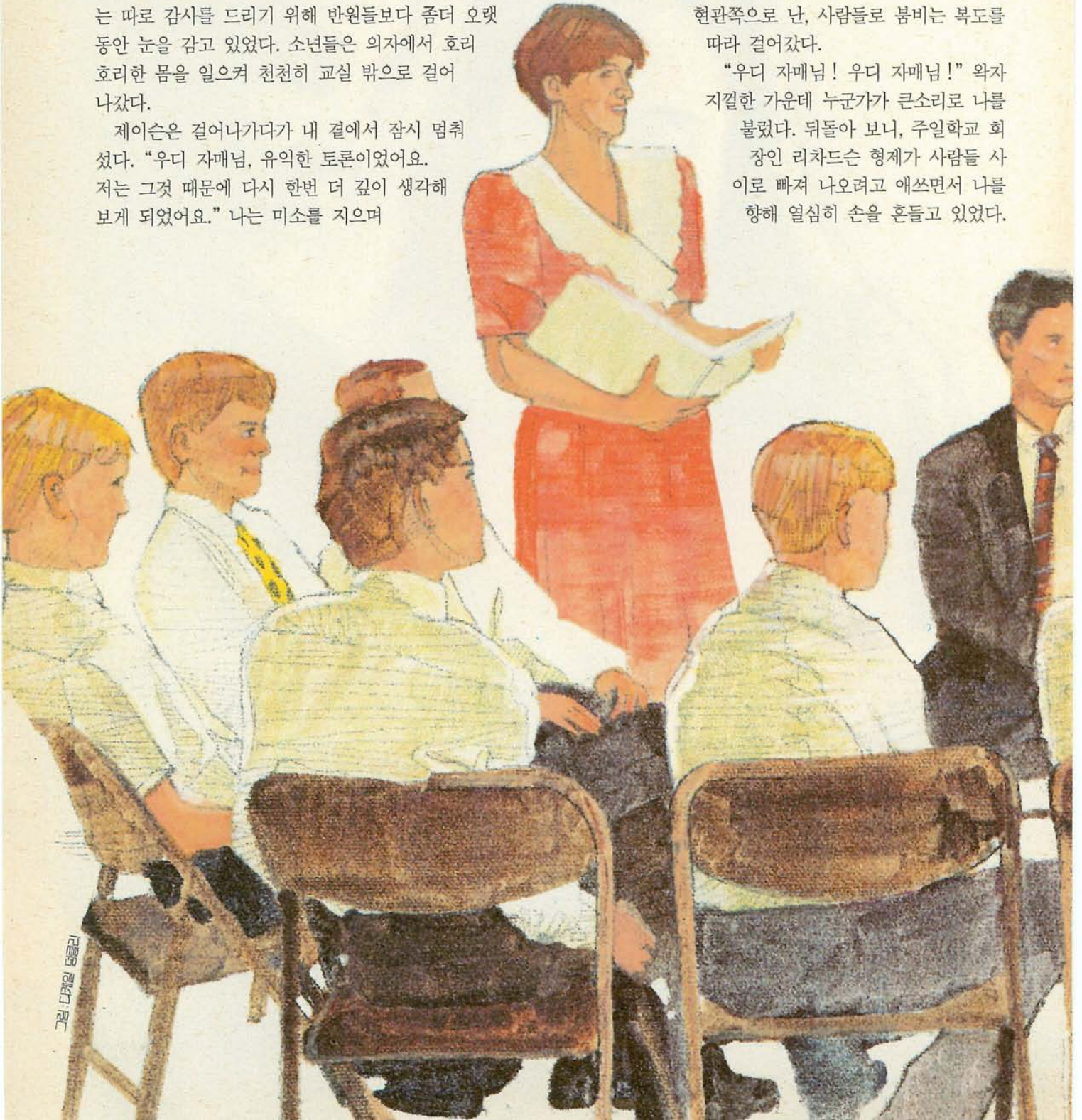
웬디 에번즈 우디

열네 살된 제이슨이 주일학교의 공과를 마치는 폐회 기도를 드렸다. 그것은 내가 가르친 공과 중 가장 성공적인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따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반원들보다 좀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소년들은 의자에서 호리호리한 몸을 일으켜 천천히 교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제이슨은 걸어나가다가 내 곁에서 잠시 멈춰 섰다. "우디 자매님, 유익한 토론이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제이슨, 나도 즐거웠어. 다음주에 또 보자."라고 말했다.

공과책과 경전을 가방에 챙겨 넣고서 나는 현관쪽으로 난,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우디 자매님! 우디 자매님!" 왁자지껄한 가운데 누군가가 큰소리로 나를 불렀다. 뒤돌아 보니, 주일학교 회장인 리차드슨 형제가 사람들 사이로 빠져 나오려고 애쓰면서 나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어느 빈 교실로 나를 데리고 가면서 "우디 자매님, 자매님과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자매님은 정말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매님께 또 다른 학생 한 명을 부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자매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하우스먼 가족이 우리 와드로 이사왔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디드라를 어느 반에 넣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매님 반이면 적당하겠다고 생각해요."

"디드라라고요?"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디드라는 최소한 열여덟 살은 될텐데요. 성인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또는 어린이회든가. 어쨌든 우리 반은 빼고요.* 라고 나는 생각했다.

디드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능이 모자라는 소녀로서 성찬식 시간에 큰소리로 떠들고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목청껏 크게 불렀다. 나는 몇몇 소녀들이 디드라를 놀림감으로 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년들은 디드라를 그저 모른 척했다. 이 열여덟 살짜리 소녀가 생기발랄한 열네, 다섯 살짜리 소년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나는 리차드슨 형제에게 "형제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반에는 소녀가 한 명도 없어요."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또 소년들은 이따금씩 좀 난폭해지기도 해요. 다른 반이 디드라에게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리차드슨 형제는 확신에 찬 미소를 띄우며 상냥하게 "아녜요. 우리는 자매님이야말로 디드라를 위한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론 그것은 자매님 마음이예요."라고 덧붙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디드라가 우리 반에 오는 걸 환영하죠."

리차드슨 형제는 환하게 웃으며 "디드라의 부모님께

말씀드릴께요. 다음 일요일에 디드라는 자매님 반에 참석할 거예요."라고 기쁘게 말했다.

나도 디드라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번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 나는 다음주에 가르치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던 공과에 관해 생각하면서 낙담에 빠졌다. 디드라의 수준에 맞춰 가르친다면 도대체 어떻게 소년들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을까? 소년들에게는 경전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많이 사용해 왔었다. 그런데 디드라는 글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아마 그녀는 우리 반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 반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다.

다음 일요일 아침은 맑고 깨끗한 날씨로 시작되었지만 그 아름다운 날씨도 내 기분을 바꿔 주지는 못했다.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

주일학교 개회 순서를 마친 후 나는 서둘러 우리 반으로 갔다. 그 곳에는 주근깨 박힌 코 위에 비스듬하게 구부러진 뿔테 안경을 걸친 디드라가 이미 와 있었다.

디드라는 나를 보자 싱긋 웃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껴안으면서 "안녕, 친구. 도울 게 있나요?"라고 말했다.

나는 무심결에 웃음이 나왔다. "원한다면 의자를 옮겨 주렴. 큰 원형으로 늘어놓아 주면 좋겠어."

소년들이 교실로 들어왔을 때 디드라는 바쁘게 의자를 옮기고 있었다. 그들은 디드라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디드라는 짐을 가리키며 "넌 여기 이 의자에 앉아."라고 말하고는 의자를 내려놓았다. 짐은 거기에 앉았다. 디드라는 소년들 하나하나에게 자리를 정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 자신도 소년들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웃으며 "잘했죠?"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 고마워"라고 대답하고는 조용히 앉아 있는 소년들에게 그녀를 소개하고 공과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디드라는 조용히 있었고 소년들은 질문에 계속 대답했다. 반원들이 신회의 각 구성원의 역할을 정의하려고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토론은 점점 더 활기를 띄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디드라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죠?"라고 물었다.

그녀는 위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저를 사랑하셔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놀라서 한순간 멈칫했다. 그런 다음 나는 "맞았어요. 예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셔요."라고 말했다. 나는 공과의 속도를 늦추고 디드라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나는 소년들에게 디드라의 답변이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올바른 답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우리는 공과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몰랐다. 공과가 끝났을 때 디드라는 나가면서 나를 껴안아 주었다. 이번에는 나도 그녀를 껴안아 주었다.

그 후로의 공과 시간이 쉬웠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디드라는 자주 지루해 했으며 소년들도 때때로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되었으며 정답게 농담도 주고 받게 되었다. 디드라는 잘해 나갔다.

어느 일요일에 디드라는 소년들 앞에서 "난 짐 옆에 앉고 싶어."라고 말했다. 소년들은 짐을 놀렸으며 짐은 귀까지 빨개졌다. 그러나 그는 친절하게도 디드라가 자기 옆에 앉도록 해주었다. 그 후 디드라는 소년들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항상 소년들과 함께 앉았다. 주일마다 디드라가 옆에 앉겠다고 선택한 소년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경전을 그녀와 함께 보았으며 게임을 할 경우에는 그녀와 한 팀이 되곤 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제 디드라는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그 반의 중요한 반원이 되었다.

1월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반원 대부분은 그 다음 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나는 리차드슨 형제를 찾아갔다.

"디드라를 한 해 더 맡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는 상냥하게 웃으며 "디드라에 대해 아주 훌륭하게 해오셨어요. 하지만 디드라와 그 부모님과 함께 이미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 우리는 그녀가 진급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갑자기 실망감이 엄습했다. 나는 내 자신이 디드라와 그녀의 명랑한 성격과 항상 안아 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디드라가 없어서 섭섭할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리차드슨 형제는 "제가 자매님은 디드라를 위한 최고의 교사라고 말씀드렸죠?"라고 말했다.

"아뇨. 제가 오히려 한해 동안 공과를 배웠어요. 디드라야말로 최고의 교사였어요."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지오바니 바티스타 피아께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열왕기하 2:9~11)

하나님은 강압과 엄한 벌로써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인내와 오래참음으로써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권유로 행하시며 감미로운 보상을 제시하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자립심을 존중하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을 취소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금지시키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며 참된 음성에 응답하고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쁨을 찾으라고 하시며 온유하고 평화로우며 강력한 권고를 주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지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 위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모로나이서 7:36)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